

1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사례조사 연구

A Case Study on the Small House for one-person households

김 현 지, 안 세 윤
한밭대학교

Kim hyeon-ji, An se-yun
Hanbat Univ.

요약

우리나라의 가구 구조는 2010년을 기점으로 1인가구로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도시지역에서 1-2인 가구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도시지역의 주거문화도 아파트 중심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간이 만들어 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어진 소형주택의 사례조사 연구이다. 문헌조사와 정보검색, 사례조사를 통해 소형주택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한국의 소형주택 사례와 유럽과 일본의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소형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소형주택은 효율적인 공간을 위해 스킵플로어의 형태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본 연구는 소형주택의 개념과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소형주택 계획의 기초자료로서 의의를 둔다.

I.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4인가구가 일반적이던 우리나라의 가구 구조는 2010년을 기점으로 1인가구로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2000년도 1인가구수가 200만을 돌파한 이후 15년 만에 2.5배나 증가한 것이다. 2015년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27.2%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가구 형태로 자리를 잡았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도시지역에서 1-2인 가구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는 새로운 주거유형을 필요로 하며, 그에 따라 기존의 주거형식에서 벗어난 소형주택, 땅콩주택, 협소주택, 이동식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공간이 만들어 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 지어진 소형주택의 사례를 살펴보고 2000년도 이후에 지어진 유럽과 일본의 소형주택 사례를 선정 및 분석하여 향후 소형주택 계획의 기초자료로서 의의를 둔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정보검색, 사례조사로 진행되었다.

첫째, 이론적 고찰에서 문헌조사와 정보검색을 통해 소형주택의 개념 및 유형을 알아보고 현재 한국에서 지어진 소형주택의 사례를 살펴본다.

둘째, 소형주택에 관한 사례조사로 유럽과 일본을 선

정하였고, 2000년도 이후에 지어진 소형주택의 위주로 문헌조사를 통해 소형주택의 유형을 살펴본다.

II. 이론적 고찰

1. 소형주택의 개념 및 유형

소형주택의 규모에 대한 기준은 따로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주택법 제 2조 제 3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전용 면적이 1세대 당 85㎡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은 일반 대중에게 가장 표준인 모델로 삼아야하는 기준으로 주택공사나 시에서 시공하는 국민주택의 경우 85㎡(25.7평)이하이고, 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민간업자가 시공하는 국민주택의 전용면적은 이보다 더욱 작은 60㎡(약18평)이다.

최근 1인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유형의 소형주택이 개발되고 있으며 소형주택의 유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땅콩주택, 코하우징(Co-housing), 강소주택, 협소주택 등이 있다.

2. 한국의 소형주택

대규모적인 도시계획에 맞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가정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1인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소형주택이 개발되고 있다.

표 1. 한국의 소형주택 사례

이름(년도)	이미지	위치	연면적
달팽이집 (2011)		경기도 고양시	82m ² (약 25평)
비상하우스 (2011)		경기도 용인시	107m ² (약 32평)

Ⅲ. 연구사례

1. 일본의 소형주택

소형주택은 높은 인구밀도와 비싼 땅값으로 인하여 주택문제를 앓고 있던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협소주택이라고도 하며 일본에서 매우 작은 집을 일컫는 말로 일반적으로 약 15평(50m²)이하의 토지에 세워진 좁고 작은 집을 말한다.

표 2. 일본의 소형주택 사례

이름(년도)	이미지	위치	연면적
House Shimouma (2009-2010)		Tokyo	109.67 m ² (약 33평)
House T(2012)		Tokyo	75.62m ² (약 23평)

2. 유럽의 소형주택

1-2인 가구 증가로 유럽에선 친환경 소형주택 단지 건축과정이 마련될 정도로 소형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표 3. 유럽의 소형주택 사례

이름(년도)	이미지	위치	연면적
Town House (2010)		Sweden	75m ² (약 22평)
House rebuilt in Casavells (2009)		Spain	102.98 m ² (약 31평)

Ⅳ. 결론

본 연구의 조사를 통해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소형주택은 주택공사나 시에서 시공하는 국민주택의 경우 85m² 이하를 말하며, 민간업자가 시공하는 경우에는 60m²(약 18평)이다. 소형주택의 유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땅콩주택, 코하우징(Co-housing), 강소주택, 협소주택 등이 있으며 현재 달팽이집, 비상하우스와 같은 소형주택이 지어져 있다.

둘째, 표 1. 표 2. 표 3.과 같이 2000년도 이후에 지어진 소형주택들은 대부분 효율적인 공간을 위해 복층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확한 층계가 아닌 스킵플로어(Skip floor)¹⁾의 형태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소형주택의 수요가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례들을 찾아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소형주택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의의를 두고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지향한다.

■ 참고 문헌 ■

- [1] 서민우, 한영호 “강소주택 실효성 논의를 위한 일본 소형주택 공간 활용 사례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 21권 1호 통권 90호
- [2] 김형자, 유진형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소형주택 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제 9권 2호 통권 28호
- [3] 박현호, 서병학 “협소주택 공간계획에 대한 전향적 특성 분석 -한국과 일본의 사례 비교분석-”, 한국주거학회 2016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 28권 제 2호
- [4] 서진영 “도시형 소형주택의 실내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일본 협소주택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 15권, 1호 통권 30호
- [5] SBS스페셜 “내 생애 처음 지은 집”

1) 건물 각 층의 바닥 높이를 일반적인 건물과 같이 한 층의 높이만큼씩 높이지 않고, 각 층계마다 반층차(半層差) 높이로 설계하는 방식을 말한다. -네이버 두산백과-